

**< 감정평가사 회계학 정오표 >**

구분	내용																																																																																
p.4 외부감사 대상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③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미만																																																																																
p.51 1번	②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 손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재측정 손익																																																																																
p.92 상8	(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매출원가) 80,000																																																																																
p.120 하2	상업적 실질이 없을 때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수수액 (손익을 기록할 수 없음)																																																																																
p.175 32번 해설	재평가이익(수익) -> 재평가이익(당기이익)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																																																																																
p.222 상5	재평가이익(수익) -> 재평가이익(당기이익)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 ->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이익)																																																																																
p.235 하4	(기타포괄금융자산) -> FVOCI 선택 금융자산																																																																																
P. 240 (상각표 단수차이 조정)	(1) 상각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일자</th> <th>유효이자(10%)</th> <th>액면이자(8%)</th> <th>상각액</th> <th>장부금액</th> </tr> </thead> <tbody> <tr> <td>20X1.1.1</td> <td></td> <td></td> <td></td> <td>₩95,026</td> </tr> <tr> <td>20X1.12.31</td> <td>₩9,503</td> <td>₩8,000</td> <td>₩1,503</td> <td>96,529</td> </tr> <tr> <td>20X2.12.31</td> <td>9,653</td> <td>8,000</td> <td>1,653</td> <td>98,182</td> </tr> <tr> <td>20X3.12.31</td> <td>9,818</td> <td>8,000</td> <td>1,818</td> <td>100,000</td> </tr> <tr> <td>합계</td> <td>₩28,974</td> <td>₩24,000</td> <td>₩4,974</td> <td></td> </tr> </tbody> </table> (2) 일자별 회계처리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20X1.1.1</td> <td style="width: 35%;">(차) 상각후원가금융자산</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right;">95,026</td> <td style="width: 15%;">(대) 현금</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95,026</td> </tr> <tr> <td>20X1.12.31</td> <td>(차) 현금</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td> <td>(대) 이자수익</td> <td style="text-align: right;">9,503</td> </tr> <tr> <td></td> <td>상각후원가금융자산</td> <td style="text-align: right;">1,503</td> <td></td> <td></td> </tr> <tr> <td>20X2.12.31</td> <td>(차) 현금</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td> <td>(대) 이자수익</td> <td style="text-align: right;">9,653</td> </tr> <tr> <td></td> <td>상각후원가금융자산</td> <td style="text-align: right;">1,653</td> <td></td> <td></td> </tr> <tr> <td>20X3.12.31</td> <td>(차) 현금</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td> <td>(대) 이자수익</td> <td style="text-align: right;">9,818</td> </tr> <tr> <td></td> <td>상각후원가금융자산</td> <td style="text-align: right;">1,818</td> <td></td> <td></td> </tr> <tr> <td></td> <td>(차) 현금</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td> <td>(대) 상각후원가금융자산</td> <td style="text-align: right;">100,000</td> </tr> </tbody> </table> ▶ 해당 상각후원가금융자산을 20X3년 1월 1일에 ₩99,000에 매도하였다면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width: 15%;">20X3.1.1</td> <td style="width: 35%;">(차) 현금</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right;">99,000</td> <td style="width: 15%;">(대) 상각후원가금융자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right;">98,182</td> </tr> <tr> <td></td> <td></td> <td></td> <td>상각후원가금융자산처분이익</td> <td style="text-align: right;">818</td> </tr> </tbody> </table>	일자	유효이자(10%)	액면이자(8%)	상각액	장부금액	20X1.1.1				₩95,026	20X1.12.31	₩9,503	₩8,000	₩1,503	96,529	20X2.12.31	9,653	8,000	1,653	98,182	20X3.12.31	9,818	8,000	1,818	100,000	합계	₩28,974	₩24,000	₩4,974		20X1.1.1	(차) 상각후원가금융자산	95,026	(대) 현금	95,026	20X1.12.31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503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503			20X2.12.31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653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653			20X3.12.31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818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818				(차) 현금	100,000	(대)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00,000	20X3.1.1	(차) 현금	99,000	(대) 상각후원가금융자산	98,182				상각후원가금융자산처분이익	818
일자	유효이자(10%)	액면이자(8%)	상각액	장부금액																																																																													
20X1.1.1				₩95,026																																																																													
20X1.12.31	₩9,503	₩8,000	₩1,503	96,529																																																																													
20X2.12.31	9,653	8,000	1,653	98,182																																																																													
20X3.12.31	9,818	8,000	1,818	100,000																																																																													
합계	₩28,974	₩24,000	₩4,974																																																																														
20X1.1.1	(차) 상각후원가금융자산	95,026	(대) 현금	95,026																																																																													
20X1.12.31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503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503																																																																															
20X2.12.31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653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653																																																																															
20X3.12.31	(차) 현금	8,000	(대) 이자수익	9,818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818																																																																															
	(차) 현금	100,000	(대) 상각후원가금융자산	100,000																																																																													
20X3.1.1	(차) 현금	99,000	(대) 상각후원가금융자산	98,182																																																																													
			상각후원가금융자산처분이익	818																																																																													
P.244	20X2.12.31 (차) 손상차손 38,264 (대) 손실충당금 38,264																																																																																

상11	<p>20X3.12.31 (차) 현금 3,000 (대) 이자수익 5,479  상각후원가금융자산 2,479  (차) 손실충당금 22,730 (대) 손상차손환입 22,730</p> <p>● 회수가능액 = ₩60,000 X 0.8264 + ₩3,000 X 1.7355 = ₩54,791</p>
p.352 하3	<p>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시의 장부금액  -&gt;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의 사채 장부금액</p>
p.353 8번 해설	<p>1) 20x1년 1월 1일 전환사채 발행가액  -&gt; 20x1년 1월 1일 부채요소 공정가치</p>
P.391 하9	<p>④ 결산시 (차) 계약원가 370,000 (대) 계약수익 300,000  미성공사 70,000</p>
P.392 예제 16-3	<p>공사는 20X4년 12월 31일 완공된다.</p>
P.432 예제 18-5	<p>&lt;해답&gt;  1. 20X6년 초 리스변경 직전 리스부채의 장부금액  = ₩100,000 X 4.32948(5기간, 5%, 연금현가계수) = ₩432,948</p>
P.475 9번	<p>&lt; 해설 추가 &gt;  1) 과세소득 = ₩150,000 + ₩24,000 + ₩10,000 = ₩184,000  2) 당기법인세 = ₩184,000 X 25% = ₩46,000  3) 이연법인세자산 = ₩10,000 X 25% = ₩2,500  4) 회계처리  (차) 이연법인세자산 ₩2,500 (대) 당기법인세부채 ₩46,000  법인세비용 ₩43,500</p>
p.603 상11	<p>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율 = <math>\frac{\text{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text{실제조업도}}</math></p>
p.710 하7	<p>당기제품제조원가 5,000개 X (50※1 + 200※2) ₩1,250,000  기말제품재고 0개 X (50※1 + 200※2) 0</p>
p.730 하13 (괄호추가)	<p>● 공헌이익률 = (매출액 - 변동원가) / 매출액</p>
p.743 하2	<p>단위당 공헌이익 = (₩400/ 80%) X 20% = ₩100  3) 목표이익 달성 판매량 = (₩80,000 + ₩20,000) / ₩100 = 1,000단  위</p>
p.744 4번 해설 괄호추 가	<p>2) (매출액 - 변동원가) / 매출액 = 75%  (매출액 - ₩120,000) / 매출액 = 75%  -&gt; 매출액 = ₩480,000</p>
p.750 하5 괄호추가	<p>2) 판매량 5,000대 이하 가정  (₩8,500,000 + ₩2,000,000) / ₩2,000 = 5,250대  3) 판매량 5,000대 초과 가정  (₩11,000,000 + ₩2,000,000) / ₩2,000 = 6,500대</p>

	-> 판매량 : 6,500대(가정 충족)												
p.771 하2	$\text{₩}10,000 = \text{₩}10 \times \text{기준조업도}$												
P.821 상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원재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25%;">기초 원재료</td> <td style="width: 25%;">360단위 X 15kg</td> <td style="width: 25%;">사용량</td> <td style="width: 25%;">3,600단위 X 15kg</td> </tr> <tr> <td>원재료 매입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b>51,450kg</b></td> <td>기말 원재료</td> <td>190단위 X 15kg</td> </tr> </tbody> </table> <p>● 원재료구입액 = 51,450kg X ₩2 = ₩102,900</p>	원재료				기초 원재료	360단위 X 15kg	사용량	3,600단위 X 15kg	원재료 매입액	<b>51,450kg</b>	기말 원재료	190단위 X 15kg
원재료													
기초 원재료	360단위 X 15kg	사용량	3,600단위 X 15kg										
원재료 매입액	<b>51,450kg</b>	기말 원재료	190단위 X 15kg										
P.824 9번 해설	예상 매입액 -> 매입원가(매출원가)												
p.832 하2 (괄호추가)	$= (\text{영업이익} / \text{매출액}) \times (\text{매출액} / \text{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 감정평가사 회계학 개념체계 개정사항 >**

구분	개정내용								
p. 10	충실한 표현 -> <b>표현충실성</b>								
p. 10 상11 중립적 서술 내용 추가	<p>중립적 서술은 신중을 기함으로써 뒷받침된다. 신중성(prudence)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 되지 않고 부채와 비용이 과소평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자산이나 주식의 과소평가나 부채나 비용의 과대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p> <p>신중을 기하는 것이 비대칭(asymmetry)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비대칭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니다.</p>								
p. 12 상11 원가에 내용 추가	<p>원가는 본질적인 주관성 때문에, 재무정보의 특정 항목 보고의 원가 및 효익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단지 개별 보고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재무보고 전반적으로 원가와 효익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p>								
p. 12 자산의 정의 개정	<p><b>①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b> 자산은 권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통제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된다.</p> <p>② 자산의 특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 text-align: center;">권리</td> <td>                     1) 권리는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확정 (그 밖의 방법으로도 권리 획득 가능)                      2) 제공받는 즉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은 일시적으로 권리가 존재                      3)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님                      4) 기업 자체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음( 예: 자기주식, 자기사채)                      5) 원칙적으로 기업의 권리는 각각 별도의 자산이지만 회계목적상 여러 권리가 단일 회계단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음                      6) 경제적 자원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집합임                      7) 경우에 따라 권리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음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 text-align: center;">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td> <td>                     1)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님                      2)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 될 수 있음                      3)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예 : 지출이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음)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 text-align: center;">통제</td> <td>                     1)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을 통제함                      2) 경제적 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권리가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권리	1) 권리는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확정 (그 밖의 방법으로도 권리 획득 가능) 2) 제공받는 즉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은 일시적으로 권리가 존재 3)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님 4) 기업 자체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음( 예: 자기주식, 자기사채) 5) 원칙적으로 기업의 권리는 각각 별도의 자산이지만 회계목적상 여러 권리가 단일 회계단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음 6) 경제적 자원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집합임 7) 경우에 따라 권리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1)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님 2)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 될 수 있음 3)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예 : 지출이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음)	통제	1)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을 통제함 2) 경제적 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권리가
구분	내용								
권리	1) 권리는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확정 (그 밖의 방법으로도 권리 획득 가능) 2) 제공받는 즉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은 일시적으로 권리가 존재 3)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님 4) 기업 자체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음( 예: 자기주식, 자기사채) 5) 원칙적으로 기업의 권리는 각각 별도의 자산이지만 회계목적상 여러 권리가 단일 회계단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음 6) 경제적 자원은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집합임 7) 경우에 따라 권리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음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1)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님 2)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이 될 수 있음 3)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예 : 지출이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음)								
통제	1)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을 통제함 2) 경제적 자원을 자신의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권리가								

	<p>있거나,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그들의 활동에 투입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음</p> <p>3)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됨</p> <p>4)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원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다른 당사자가 아닌 그 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유입되어야 함</p> <p>6) 경제적 자원에 의해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의적인 변동에 노출된다는 것은 기업이 해당 자원을 통제한다는 것임</p> <p>7) 본인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을 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경제적 자원은 대리인의 자산이 아님</p>						
<p>p. 13 상1 부채의 정의 개정</p>	<p><b>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b></p> <table border="1" data-bbox="438 918 1316 1444"> <thead> <tr> <th data-bbox="438 918 571 952">구분</th> <th data-bbox="571 918 1316 95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38 952 571 1288">의무</td> <td data-bbox="571 952 1316 1288"> <p>1)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해야 함(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음)</p> <p>2)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확정되지만 실무, 관행, 경영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p> <p>3) 일부 상황에서는 기업 스스로 취할 수 있는 특정 미래의 행동을 조건으로 발생함</p> <p>4) 어떤 경우에는 의무가 존재하는지 불확실함</p> </td> </tr> <tr> <td data-bbox="438 1288 571 1444">경제적 자원의 이전</td> <td data-bbox="571 1288 1316 1444"> <p>1)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해야 할 잠재력이 있어야 함</p> <p>2) 경제적 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음</p>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의무	<p>1)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해야 함(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음)</p> <p>2)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확정되지만 실무, 관행, 경영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p> <p>3) 일부 상황에서는 기업 스스로 취할 수 있는 특정 미래의 행동을 조건으로 발생함</p> <p>4) 어떤 경우에는 의무가 존재하는지 불확실함</p>	경제적 자원의 이전	<p>1)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해야 할 잠재력이 있어야 함</p> <p>2) 경제적 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음</p>
구분	내용						
의무	<p>1)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해야 함(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음)</p> <p>2)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확정되지만 실무, 관행, 경영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p> <p>3) 일부 상황에서는 기업 스스로 취할 수 있는 특정 미래의 행동을 조건으로 발생함</p> <p>4) 어떤 경우에는 의무가 존재하는지 불확실함</p>						
경제적 자원의 이전	<p>1)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해야 할 잠재력이 있어야 함</p> <p>2) 경제적 자원의 이전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음</p>						
<p>p. 14 인식 내용 개정</p>	<p>① <b>인식이란</b>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분개 또는 회계처리한다고 표현)</p> <p>② 장부금액 :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p> <p><b>③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의 인식은 허용하지 않음</b></p> <p>④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용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산과 부채를 인식</p> <table border="1" data-bbox="438 1792 1316 1960"> <tbody> <tr> <td data-bbox="438 1792 1316 1870">㉠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td> </tr> <tr> <td data-bbox="438 1870 1316 1960">㉡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의 충실한 표현</td> </tr> </tbody> </table> <p>⑤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원가를 정당화할</p>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	㉡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의 충실한 표현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							
㉡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의 충실한 표현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																
p. 14 하1 제거 내용 추가	<p>① 제거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p> <p>②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p>																
p. 15 측정기준 내용 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산</th> <th>부채</th> </tr> </thead> <tbody> <tr> <td>역사적원가</td> <td>지급한 대가 + 거래원가</td> <td>수취한 대가 - 거래원가</td> </tr> <tr> <td rowspan="3">현행가치</td> <td>공정가치</td> <td>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td> <td>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td> </tr> <tr> <td>사용가치 (이행가치)</td> <td>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td> <td>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td> </tr> <tr> <td>현행원가</td> <td>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td> <td>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 -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td> </tr> </tbody> </table>	구분	자산	부채	역사적원가	지급한 대가 + 거래원가	수취한 대가 - 거래원가	현행가치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사용가치 (이행가치)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	현행원가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 -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
	구분	자산	부채														
역사적원가	지급한 대가 + 거래원가	수취한 대가 - 거래원가															
현행가치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사용가치 (이행가치)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														
	현행원가	측정일에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 +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	측정일에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 -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역사적원가</td> <td> <p>1)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된 변동은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음</p> <p>2) 원가를 식별할 수 없거나 그 원가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현행가치가 최초 인식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p> <p>3) 필요하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예 : 감가상각, 손상, 이자의 발생)</p> <p>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방법은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p> <p>5) 현행가치 보다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대부분 검증가능하나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p> </td> </tr> <tr> <td>공정가치</td> <td> <p>1) 시장참여자 관점을 반영</p> <p>2) <u>거래원가는 조정하지 않음</u></p> </td> </tr> <tr> <td>사용가치 (이행가치)</td> <td> <p>1)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p> <p>2)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p> </td> </tr> <tr> <td>현행원가</td> <td>측정일의 조건을 반영</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역사적원가	<p>1)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된 변동은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음</p> <p>2) 원가를 식별할 수 없거나 그 원가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현행가치가 최초 인식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p> <p>3) 필요하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예 : 감가상각, 손상, 이자의 발생)</p> <p>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방법은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p> <p>5) 현행가치 보다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대부분 검증가능하나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p>	공정가치	<p>1) 시장참여자 관점을 반영</p> <p>2) <u>거래원가는 조정하지 않음</u></p>	사용가치 (이행가치)	<p>1)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p> <p>2)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p>	현행원가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							
구분	내용																
역사적원가	<p>1)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된 변동은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음</p> <p>2) 원가를 식별할 수 없거나 그 원가가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현행가치가 최초 인식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p> <p>3) 필요하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갱신(예 : 감가상각, 손상, 이자의 발생)</p> <p>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방법은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것</p> <p>5) 현행가치 보다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대부분 검증가능하나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p>																
공정가치	<p>1) 시장참여자 관점을 반영</p> <p>2) <u>거래원가는 조정하지 않음</u></p>																
사용가치 (이행가치)	<p>1)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p> <p>2)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p>																
현행원가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																

<p>p. 19 하1 8. 보고기업</p>	<p>①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으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② 보고기업별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비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p>
<p>9. 회계단위</p>	<p>① 회계단위란 인식기준과 측정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 ② 원가는 회계단위 선택도 제약한다. 원가는 회계단위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한다.</p>

<< 관련 문제 >>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며,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과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 ② 기업은 기업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 ③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 ④ 경제적 자원의 가치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현재의 잠재력에서 도출되지만, 경제적 자원은 그 잠재력을 포함한 현재의 권리이며, 그 권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아니다.
- ⑤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출이 없다면 특정 항목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해답> 1. ④

- ①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 ② 기업은 기업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 ③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르면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부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채무나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하므로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의 신원을 알아야만 한다.
- ② 많은 의무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되며, 당사자(또는 당사자들)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기업이 실무 관행, 공개한 경영방침, 특정 성명(서)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실제 능력이 없는 경우, 기업의 그러한 실무 관행, 경영방침이나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 ③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현재의무는 기업이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한다.
- ⑤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더라도 현재의무는 존재할 수 있다.

<해답> 2. ①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다.

3.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측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채의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가치이다.
- ② 자산의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한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 ③ 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 ④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차감한다.
- ⑤ 자산의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로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해답> 3. 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포함된다.



4.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측정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역사적 원가 측정치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에서 도출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관한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 ② 현행가치 측정치는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갱신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현행가치는 이전 측정일 이후의 변동, 즉 현행가치에 반영되는 현금흐름과 그 밖의 요소의 추정치의 변동을 반영한다.
- ③ 공정가치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 관점을 반영한다.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면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할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하여 그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한다.
- ④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감소하지 않는다.
- 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시장참여자의 가정보다는 기업 특유의 가정을 반영한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있으나 직접 관측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흐름기준 측정기법으로 결정된다.

<해답> 4. 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으며, 시장참여자 관점보다는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한다.